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계획'에서 '실행'으로 균형발전 새 판 시동

도·국토부, 타운홀미팅 계기 200만 메가시티 청사진 새만금 완성·전주 대도시권 혁신·광역 교통망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전북 200만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간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 완성,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국가 성장 전략과 본격적으로 맞물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개발 면적의 80%를 2040년 이전에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 용지는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약속한 면적은 공공이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선언 아래, 전북도 역시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 확충과 공사체 발발 허용 등 재정 기반을 강화해 공공주도 개발을 확대하고 기 매립지의 조기 활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새만금의 변화도 가파르다.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중 사업계획이 확정된 3.3GW를 2030년까지 우선 기동한다. 국내 최초 RE100 전용 신단으로 육성해 이차전지·수소 연료전지·AI 데이터센터도 집적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오전 현대차 그룹과 재생에너지, 로봇, 수소 AI 데이터센터 등 9조 원 규모의 투자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공급부터 규제특례·교통·주거 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광역 단위 포괄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새만금 메가특구 모델로, SOC·R&D·세계김면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즉시 부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 부자의 중심 무대가 될 새만금은 AI가 도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로봇이 물류·운송·돌봄을 지원하는 AI 로봇 도시 선도 모델로 조성된다.

수소 산업도 전북 성장의 핵심 축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완주 수소 상용차 공장과 연계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한다. 도는 부안 수전해 플랜트 실증을 시작으로 새만금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로 단계 확장하고, 생산된 수소 활용을 위한 수소배관망 구축과 수소 모빌리티 실증을 통해 생산·이동·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연금 자산 운용 기능을 집적해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기관 수 유치 경쟁이 아닌 기능군 중심 전략으로 접근해 농업중심화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등 핵심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한 MICE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 조성되는 MICE 복합단지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등이 집적된 12만㎡(약 3만6,000평) 규모로,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탄소·피지컬 AI·K컬처 역량이 집약된 전주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의 도심융합특구 지정도 추진하며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의 집결지로 탈바꿈한다.

또한 국토부는 전북 도약을 위해 전북 내·외부의 촘촘한 교통망도 구축한다.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전북을 '1시간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으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북도가 건의한 주요 교통망 사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에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동익산~완주산단)·서해안선(새만금~목포),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전주~무주·완주~세종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의 핵심 교통물류망인 국제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완성도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새만금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성장 전략이 국가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기업 투자가 실제 고용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 조성에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다시 힘차게 오른 코스피



코스피는 전 거래일(5083.54)보다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한 5일 서울 증주 하나은행 본점 전광판에 자수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 자수는 전 거래일(978.44)보다 137.97포인트(14.10%) 상승한 1116.41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6.2원)보다 8.1원 내린 1468.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내란방조 의혹 관련, 특정 후보 편향 '문제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시민단체, 민주 도지사 경선 특정 후보의 일방적 주장 반영... 도민 반발 예상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과 관련한 일부 인터넷 매체나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과 관련한 일부 인터넷 매체나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경호(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씨는 "일부 인터넷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도지사 선거과정의 특정 후보 주장에 맞춰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을 들으려는 생각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행정의 감시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자세가 치졸하고 응징하며 공격하기만 하다"며 "국회의원 신분과 도지사 후보로서 당연히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토와 행적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문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본분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택 의원(사진)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행한 지난 2024년 12월 9일 불법계엄과 관련,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의 당시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동향 파악 및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비 등 상황에 대해 진상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 매체와 단체는 특정 후보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비판 보도와 성명서를 발표해 선거개입 논란여지가 지 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의 주장을 선거과정에서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도민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심각한 언어 남용으로 판단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정책의 역량을 평가받는 지리지 상대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지리가 아니라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헌법·반국적적 의미를 가진 표현을 정치공세로 쓰는 행위는 즉각

기록과 증언을 무시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해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전북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반박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12.3 내란 당시 행안부 및 국회 국정감사 제출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등은 제3의 세력이 선거 네거티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 날조했다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는데 이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내막을 설명하려는 주장을 마치 선거 프레임과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것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민들의 주장이 민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중단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인터넷 매체는 도청 폐쇄는 없었으나 전북도의 입장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록과 증언을 무시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서슬퍼런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이들에게 인권유린 및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온 것이 엄청난 사실인 것을 유념하고 특히 윤석열의 내란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만큼 조사 결과 전북도가 동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범죄가 있다면 응당 진상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책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당연한 일인데 이를 덮어두고 나중에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며 지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김민석 총리, 새만금 방문... 현대차 'AI 수소 시티' 투자계획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관련사진 2면)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로봇·AI·수소 산업이 결합된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고에서 약 9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을 구축하는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약 80%를 2040년까지 조성 목표로 앞당기고, 산업·도시용지를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